

연예&TV

STAR FOCUS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내 딸 생각하니 분노 폭발

유괴사건에 의도하지 않은 감정입 '대물' 카메라로 당일 문자만 30통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신혼여행 가서도 딱 한 장 찍을 정도였는데..."

연기자치고 인터뷰를 위한 사진 촬영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펼치는 것과 달리 인터뷰만을 위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이 포즈, 저 포즈 취하는 건 곤혹스러웠다.

배우 김태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타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더니 "역시 연기와 사진촬영은 다르다"며 웃었다.

이런 그가 연기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다. 4일 개봉한 영화 '돌이킬 수 없는'(감독 박수영·제작 재크필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김태우는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대중의 애정과 선

입견 그리고 새롭게 다가온 느낌을 전했다. "돌이킬 수 없는"은 아이를 잃은 뒤 이웃 남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걸 알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아빠와 그 이웃 남자가 벌이는 이야기다. 유괴당한 아이를 둔 아빠의 처절한 심정을 담은 김태우의 분노와 이웃 남자 이정진의 속내 모를 표정의 연기가 맞부딪혔다.

김태우는 "돌이킬 수 없는"에 대해 "관객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춘 영화"로 소개했다. 그 대중성의 한 가운데에 '감정입'이 있다.

실제 아빠인 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아! 아무리 영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카메라 앞에서 "극중 딸에 대한 생각만 했다"며 "인간이어서 입도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극중 상황을 실체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펼쳐놓은 '박살'은 바로 김태우의 객관적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연기를 통해 "미처 의도하지 않은 감정입"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김태우는 또 다른 점



4일 개봉한 '돌이킬 수 없는'에서 유괴당한 아이의 아버지를 연기한 김태우.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덩수룩한 수염이 이색적이다.

에서 화제를 모았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드라마 '대물' 1회에 고현정의 남편 역으로 카메라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덩수룩한 수염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방송 당일엔 문자메시지 30통이나 받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며 웃었다.

이 같은 상황을 그는 "조금 즐기고 싶은 생각도 든다"며 또 한 번 웃었다. "자연스러운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일까. 지금까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 지 모르나"는 김태우는 "그러나 아직 그럴

게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건강한 고집을 드러냈다. 다만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마저 거부할 필요는 없어 이제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갖는다고 말한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며 폭넓은 연기자로서 개성을 드러내온 김태우의 동생 김태훈 역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0년 뒤 배우로서 같이 형제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한다면 좋겠다"며 "목욕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동생"이 대견스럽다는 듯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김태우는 또 다른 주연작 '여의도'의 12월4일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 및 뮤직

수잔 보일 '더 기프트'



'여자 폴 포츠'로 알려진 수잔 보일이 두 번째 앨범 '더 기프트'를 발표했다. 발표 시기가 겨울임을 감안해 '오, 홀리 나이트' 더 퍼스트 노엘' 등 캐럴이 담겼다. 보일은 '제2의 수잔 보일'을 찾는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앰버 스타시(Amber Stassi)와 부른 '두 유 히어 왓 아이 히어'(Do You Hear What I Hear)도 앨범에 담았다.

이번 음반에 대해 보일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기분이 맞춰 줄 수 있는 모든 분위기의 곡들을 포함시키고 싶었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다"고 전했다.

보일은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로 데뷔했다. 데뷔 앨범 '아이 드림드 어 드림'으로 가수란 꿈을 이룬 그녀는 "노래를 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헬로윈 '7 시너스'



파워 메탈계의 강자 헬로윈(Heloween)의 14번째 정규 음반이다. 역대 최강의 스피드와 멜로디로 채워졌다. 보다 강력한 금속성 기타 리프에 실리는 파워, 거친 모래를 한 움큼 털어 넣은 듯한 캔디 테이스트의 우승한 앰버 스타시(Amber Stassi)와 부른 '두 유 히어 왓 아이 히어'(Do You Hear What I Hear)도 앨범에 담았다.

새 음반 타이틀은 멤버들이 마이키(Michael Weikath)의 PC에서 본 헵타그램(heptagram)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7개의 꼭짓점을 가진 요정의 별로, 알려진 헵타그램은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 기원을 두는 탓에 이교도 또는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이키는 이별이 지닌 강력한 마술적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에 매혹되었다. 이는 '일곱 열쇠의 파수관'이라는 밴드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연상케 했고, 멤버들은 어렵지 않게 '일곱 죄인'을 만들어 냈다.

공중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 1, KBS 2, MBC, SBS, OBS, 지역민방) and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1588-3002, 한국케이블TV 방송총회 02-735-6511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categories: 뉴스·경제, 영화, 드라마, 오락·음악, 스포츠·레저, 다큐·교양, 만화·게임, 생활, and others, listing specific programs and times.

랭킹 뉴스

Table of music rankings with columns for rank, title, artist, and album name.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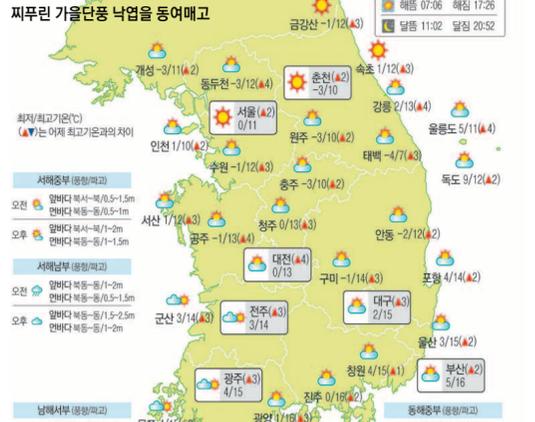


Table of baseball scores for various teams, including Seoul, Incheon, Suwon, Chuncheon, Gwangju, Chungju, and Cheongju.

Advertisement for Sports Donga (스포츠동아) websit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